

“경기부양론” vs “군수치적론”

장흥군-의회, 추경예산안 편성 갈등
군 “코로나19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의회 “민생과 거리 먼 선심예산” 맞서

장흥군과 장흥군의회가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장흥군은 경기부양론을, 의회는 군수치적론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장흥군과 의회에 따르면 군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극복을 명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안을 제시하자 군의회는 경기 활성화와 민생과는 거리가 먼 군수 치적쌓기에 치중했다며 맞서고 있다. 장흥군은 불요불급식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112억원을 포함해 총 870여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에는 전남안전테마파크 건립 부지 매입비 40억원 등 각종 사업 부지 매입비 총 109억원, 농로 포장 및 용수로 배수 개선 등 현안사업 130억원, 읍면 복지관 건립 등 건물 신축비 23억원 등 자체 사업비가 55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농협 중앙회로부터 받은 귀농귀촌 버섯체험장 국비 공모사업 군비 부담금 등 총 보조 사업비 315억원을 편성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추경예산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극복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해양수산, 축산 분야와 용수로 개선 등 농업 관련 분야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흥군의회는 상당수 예산이 비생산적인 공공건물 신축 부지 매입과 주차장 건립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군수 치적쌓기용 선심예산에 치중했다며 재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회는 추경안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과 의회는 최근 열린 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기금 집행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장흥군은 코로나19 극복이 절실하다며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회는 자칫 금융권의 대손충당금처럼 운용될 소지가 있다며 조례 개정 후 기금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원예수출단지 2곳 농식품부·aT 평가 ‘최우수’

강진 그린화훼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탐진들농산물전문생산단지 2곳이 정부 평가 최우수 수출단지로 선정됐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이들 2개소가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1~2월 전국 농산물생산단지의 운영실태 분석·평가를 통해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인센티브 재원으로 수출 확대 및 수출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단지는 수출물류비 5~7% 및 농가조직화 교육비, 해외전문가 초청 컨설팅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그린화훼농산물전문생산단지는 8ha의 시설면적에 수국·꽃작약 등을 재배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일본으로 생산량의 40% 이상 수출하고 있다. 탐진들농산물전문생산단지는 15ha의 점단유리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에서 최고급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온실에서 최고급 파프리카를 생산해 연평균 7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생산량의 50% 이상(약 40억원)을 일본 등으로 수출해 매년 우수단지로 지정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화훼 등 농산

물 유통이 어려우며 처했지만,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해외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전문단지 육성을 위해 시설원에 품질개선 사업과 경쟁력 강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흥군, 임기제 공무원 채용 남발...중앙정부 통제 절실

직제에 없는 군수실 산하 5급 상당 정책보좌관 임명 등 5개월째 운영
장흥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위임에 따라 행정기구와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남발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들어 군수실 산하에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 ‘소통민원팀’, ‘정책보좌관’, ‘영상지원단(장흥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직제에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와 공무원 채용 권한이 지자체장으로 위임되면서 임기제 공무원과 비직제 기구의 남발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1일자로 임명된 정책보좌관(5급 상당)은 군수 정책보좌와 함께 중앙과 전남도를 연계해 각종 공모사업 유치, 관광사업 발굴 등 예산 확보를 담당한다며 5개월째 운영되고 있다. 소통민원팀(별정 6급)은 ‘군수에게 바란다’를 비롯한 생활민원을 전달하는 기구로 팀장을 포함

해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영상지원단(장흥방송·JH)은 3명의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지역 영상물을 제작해 각 방송사에 제공하는 등 장흥을 홍보하고 기록한다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와 일부 지역민들은 이들 기구가 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운영되는 등 행정조직의 옥상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생막걸리, 일본서 인기

면역력 강화 효과...수출 40% 급증
강진 병영생막걸리가 일본에서 인기다. 요구르트보다 10배 많은 풍부한 유산균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병영양조장에서 빚은 생막걸리가 지난 15일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일본 즉 수입·판매업체는 3월부터 수출물량을 지난달보다 30~40% 증량해 술을 빚어 줄 것을 요청했다. 병영생막걸리는 지난해 일본으로 총 6만ℓ(6000만원) 수출했으나 올해 들어 주문이 크게 늘어 총 수출량은 8만ℓ, 매출 8000만원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영양조장의 60년 열정과 노하우가 담긴 함살로 빚은 생막걸리는 요구르트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유산균이 풍부하다.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김견식 병영양조장 대표는 “좋은 술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엄선된 재료로 만든 뛰어난



김견식 병영양조장 대표가 일본 수출용 병영생막걸리를 선보이고 있다. (강진군 제공)

맛과 품질의 강진산전통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 대표는 2014년 식품명인 제61호로 지정됐으며, 2016년 벨기에 국제식품포럼(ITQI) 은상, 2018년 국가지정 술 품질인증 획득, 2019년 남도전통술포럼회 증류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설성동동주, 청세주, 북분자주 등 다양한 주류 개발로 전통주 고급화 및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장흥표고버섯, 베트남 첫 수출

올해 34만달러어치 구매 확정
장흥 특산물 표고버섯이 처음으로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기쁨농원은 장흥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과 레몬그라스를 활용해 베트남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시판용 테이블 소스를 개발, 수출에 성공했다. 지난 11일 첫 수출길에 오른 테이블 소스 물량은 1t으로 베트남 호치민시에 전량 공급된다. 이번 수출 성과는 지난 2018년 11월 장흥군과 베트남 유니트레이드 JSC사, ㈜기쁨농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실이다. ㈜기쁨농원은 그동안 베트남 호치민 현지 마켓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 34만달러어치 구매 확정 계약을 성사시켰다. 장흥군은 표고버섯을 비롯한 특산물 활용 고부



베트남 수출용 표고버섯소스. 가치기 가공제품의 개발과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주 기쁨농원 대표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낸 첫 수출이라 의미가 크다”며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영암군, ‘주민 주도 마을관광축제’ 5개 선정 지원

영암군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관광축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암군은 마을단위 주민조직과 단체를 대상으로 5개 내외를 선정해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첫 시행하는 마을관광축제는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관광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관계망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구조 마련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키로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주민

이 공동체 내에서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 지원을 통해 지역 고유의 삶의 문화 형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과 주민 참여 문화기획 프로그램, 마을·지역 예술창작 및 향유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단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마을관광축제 선정은 주민 모두가 수평적인 논의체제로 참여하는 민주성·공공성·주체성·일상성 등 중점 고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 참여 의지, 운영의 적정성, 자생력 확보 가능성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NH농협손해보험